

일주문

제2회 국화꽃 사진 공모전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11월 29일까지 제2회 국화향기나눔전 촬영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장 취임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10월 2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 경승실장에 취임했다.

2013 자비나눔 김장 행사
공주 마곡사 주지 원해 스님은 11월 24~25일 마곡사에서 2013년 자비의 나눔 김장김치 행사를 개최한다.

평화재단 창립 8주년 토론회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10월 31일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창립 8주년 기념식과 통일주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강대 개교 10주년 기념식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11월 7일 교내 대강당에서 천태종 종정 도음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제6회 청승학술상 수상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는 11월 3일 서울 합춘회관에서 청승학회가 운영하는 제6회 청승학술상을 수상했다.

환경운동 대중강연
김규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1월 15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 환경운동가 제인구달 박사를 초청 대중강연을 개최한다.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 임명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31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사진)에게 임명장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4년 전 임명장을 받은 이후 지역 교구발전 위해 노력해왔으며, 2년 전 신화여고를 인수해 청소년 포교 활동을 펼치는 등 모범적인 주지 소임을 살았었다"며 "본사 화합을 위해 애써주고, 앞으로도 종단이 추구하는 자성과 쇄신 5대 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돈관 스님은 대구불교방송 총괄국장, 은혜사 기획국장, 환성사 주지, 불광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2008년 12월부터 은혜사 주지 소임을 맡아왔으며, 지난 10월 25일 선거인단 69명 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주지후보에 선출됐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 은혜사는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신종일 기자

“대각사상 젊은 사람도 느끼게 할 것”

대각회 신임이사장 도업 스님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은 현대 포교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사상입니다. 젊은 불자들이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을 느낄 수 있도록 신앙사업을 활발히 펼치겠습니다.”

근대불교사의 선지식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을 잇는 대각회 제15대 이사장으로 도업 스님이 취임했다.

10월 29일 서울 법안정사에서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동국대 경주캠퍼스 명예교수 도업 스님은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학술진흥 △법인 정체성 확립 △용성 스님 저작 디지털화 등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도업 스님은 “용성 스님은 감옥에서 〈화엄경〉 위시한 경전 번역을 비롯해 대각사에서 어린이 포교, 또 선농일치사상을 펴며 농원 운영을 하는 등 당대 포교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선구자였다”고 말했다. 스님은 “대각회는 이런 스님의 사상을 잇기 위해 1969년 만들어진 법인”이라며 “대각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업 스님은 기존 대각사상연구원의 학



술편찬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학술자료를 보다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용성 스님의 저작 전집을 전산화 하는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스님은 “한문 부분은 번역, 한글부분은 윤문을 통해 디지털화 할 예정”이라며 “5년의 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조계종단과 법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대각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소통

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대각회 정체성을 지키고 회원사찰들의 유대관계를 높이기 위해 의견수렴의 장을 따로이 만들 예정”이라며 “180개 사찰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각회 초대 이사장인 동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도업 스님은 1969년 분황사에서 동헌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와 학장, 정각원장, 대학원장, 한국정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와 법안정사, 대각정사, 화엄법계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대각회 명예이사장 효성 스님의 축좌식과 감사패 전달 등이 함께 봉행됐다.

효성 스님은 “대각사상 전산화 불사는 꼭 필요한 불사”라며 “도업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대각불사를 성공리에 수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oc@hyunbul.com

“수도권 신도 역량 한데 모을 것”

지승동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장 취임

“직할교구 신도회는 불법을 받들어 인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전법과 포교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0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 제1, 2대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이현수 직할교구신도회 초대회장 이임 및 지승동 2대회장 취임을

겸해 이뤄졌다. 법회는 4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스 김성민 씨, 진관사 모음 합창단, 조계사 혼성합창단의 음성공양 등과 이·취임식, 지원 스님

과 로담 스님 등 시인 스님들의 시낭송회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직할교구 신도회는 종단과 불교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신임 지승동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직할교구 신도회가 날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지승동 신임회장은 “직할교구 신도회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신도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신도역량 강화와 신도포계 사업정책 지원, 신도회 간 상호교류와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서원했다.

직할교구 신도회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총재로,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지원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직할교구 사무국장 진관 스님이 지도법사를 맡는다. 노덕현 기자

일면 스님, 나눔국민대상 표창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사진>이 10월 25일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진행된 ‘KBS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생명나눔 부문 표창장을 받았다.

일면 스님은 평소 장기기증 홍보와 기증 활성화에 앞장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처음 시행된 ‘KBS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온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이들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보건복지부 등 민·관이 합동으로 사회공헌 포상을 위해 마련했다.

KBS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위원회가 주관한 사회공헌분야 정부 표상인 ‘KBS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재능나눔·행복나눔·생명나눔·희망멘토링 부문으로 구분해 170여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됐다.

스님은 “표창은 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직접 장기기증을 실천한 기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생명나눔 회원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표창이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더욱 장기기증 홍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맑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너는 기자

명원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2일 하얏트호텔서 정중해·하오명·박금희 수상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제17회 국제명원 차(茶)문화대상 공모상 수상자로 정중해 보성군수, 학술상 수상자로 하오명 한국대학(茶學) 연구원장을 각각 선정했다. 또 교육상은 명원문화재단 박금희 대구2지부장에 돌아갔다. 시상식은 11월 2일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으며 차 문화제와, 축하만찬 등이 진행됐다. 이너는 기자



정중해 씨 하오명 씨 박금희 씨

목적배 교수의 병상일기



“대중 앞에 섰다...이 법열, 바라밀 정행 아닌가”

10월 26일 범어사 설법전에서는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모인 300여 대중은 한 나이트 교수의 13분 강연에 10회의 박수가 울렸다.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보이는 그 교수가 외치는 저명저명한 목소리에 담긴 열정은 대중들의 정신을 바짝 추켜세웠다. 원인 불명의 혈액종양이란 희귀병과 싸우는 와중에도 동산 스님 선사상 학술대회에 참가한 목적배 동국대 명예교수의 이야기다. 현재 상계 백병원(1316호)에서 투병 중

인 목적배 교수의 병상일기 중 범어사 일화를 먼저 전한다.

10월 25일 | 아! 일어남이란 얼마나 힘이 솟구는 행위인가. 새삼 느끼게 되었다. 나는 일어나 부처님의 가르침 전하는 법사로 봉법제자로 살아 갈 것이다. 몸은 아프지만 동산 스님을 따라 위법망구해야 한다. 계율확립·대중교화·교단정정을 위해 가슴으로 전법하는 조그만 불자로 살아가야 함이라. 즉 이것이 동산 스님의 감인 대정신이 아닐까.

10월 26일 | 오전 7시 30분 상계 백병원에서 출발했다. 부산 금정구 정릉동 근처에서 점심공양을 하고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고 범어사 설법전으로 이동했다. 모든 일은 연이 맞아야 한다. 부처님을 깊이 믿으니 인연화합이 바르게 진행된다. 꼭 범어사 법회 참여하고 싶었는데 병원 측에서 차도가 괜찮다고 하여 다행이다. 새벽에는 보살의 도움없이 혼자 일어나 화장실 복도 순행도 잘 마쳤다. 범어사에서 법문하는 것, 또 대중을 만나는 것이 모두 기쁘다. 어찌 법열이 아닌가.



범어사 설법전에서 최후에 보정기를 끼고 강연하는 목적배 교수

10월 27일 | 범어사에서 14시간이나 걸려 서울로 올라왔다. 저녁 다시 병원으로 와 치료를 받는데 문득 고마움이 솟구쳤다. 동산 스님에 대한 깨침·수행·종단의 앞날을 전망한 원력이 사무쳤다. 무리한 행정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세체불교 바라밀정행이 아닌가.

불교의식 학인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7기생)

팔공불교대학에서 초심자라도 불교의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 ◆ 개강일시 : 2012년 11월 26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7시 ~ 10시)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접 수 : 2012년 11월 25일(일요일)까지

1 교육 과정 (내용)
도량석, 종승, 향수해제, 삼보통칭, 중단퇴공, 불공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각단불공

2 재의 시식편
천도재, 시달림, 방생의식, 관음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범음범패와 의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3 사 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신청문의 및 접수처 : 대구시 동구 도동 44번지(팔공 IC 5분거리)
☎ 053)986-1080, 010-9361-5566

팔공불교대학 학장 일관 합장

단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앰프를
웅장하고, 맑은 소리로 바꾸어 드립니다

▶ 방법 : 앰프와 마이크 또는 스피커와 마이크 등 좋지않은 장비를
고급 신형 제품으로 교체 해 장엄한 소리를 보시하겠습니다.

- 보완 보시기간 : 2012년 10월 ~ 11월 30일까지 (예약 순으로 일주일에 2곳만 설치 해 드립니다)
● 해당지역 : 서울, 경기, 일부지역 (이외 지역은 출장비 일부가 추가됩니다)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고성능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빠-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호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